



5월 10일 서울 봉은사 앞마당에 모인 강남지역사암연합회 4000여 불자들은 문화공연을 보며 즐거운 한 때를 보냈다. 이들은 즐거운 마음과 함께 어려운 이웃을 위한 십시일반의 자비심도 더했다.

‘사회의 빛 시대의 빛’ 서원... 강남을 수놓다

5월 10일, 강남지역 자비나눔 첫 대법회 4000여 불자 결집

“이 곳이 불국토의 한 곳이라는 자부심으로 정법의 기치를 높이 들고 새 바람을 불어넣고자 합니다. 지역 사회에 기여하는 불교, 시대의 빛이 되는 불교가 될 것을 서원합니다.”

햇살과 꽃내음이 봄기운이 완연하게 느껴진 5월 10일, 자비나눔정신을 실천하고자하는 불자들의 마음이 서울 강남의 봉은사 도량을 가득 메웠다.

이날은 강남, 서초, 송파, 강동구 등 강남 4구 사찰 연합인 강남지역사암연합회(회장 정우)가 부처님오신날을 앞두고 ‘자비나눔을 위한 강남지역 불자대법회’를 봉행한 날, 대법회에 참가한 4000여 불자들은 삼귀의와 반야심경을 합송하며 자비심을 내는 것으로 법회의 문을 열었다. 행사는 1부 법회와 2부 문화공연으로 나뉘어 진행됐다. 본격적인 법회에 앞서 진행된 강남지역 사찰의 연합합창단과 봉은사 풍물패의 식전공연은 대중의 환희심을 북돋기에 충분했다.

“오늘 이 자리는 소외된 이웃과 그늘진 곳에서 어려움을 겪는 이들에게 조금이나마 따뜻함을 나누고자 하는 법석입니다. 더 나아가 자비나눔으로 동행하는 승가공동체가 돼 새로운 전법의 길을 열고자 합니다.”

강남지역사암연합회 회장 정우 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어려운 이웃을 위해 강남지역 불자들이 힘을 모을 것을 당부했다.

뜨거운 햇살을 피해 무대석이 아닌 도량 곳곳에 자리한 대중들 때문일까. 정우 스님은 “지금 앉은 좌석이 많이 비었네요, 자리 하나 당 5000원인데 말이

죠”라며 대중의 웃음을 자아냈다.

이어 정우 스님은 강남지역 사찰에서 모은 자비나눔 기금 5000만원을 아름다운동행 사무총장 해일 스님에게 전달했다.

강남 불자들의 활동을 격려하기 위한 조계종 차원의 격려사도 진행됐다. 조계종 포교원장 지원 스님은 “강남은 우리나라 중심 지역이지만 어렵게 불교 인구가 가장 취약한 곳이기도 하다”며 “서울을 대표하는 이곳에 부처님의 가르침을 더 널리, 더 깊이 전하겠다는 원을 세우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격려했다.

법회에서 법사로 나선 前중앙승가대 총장 종범 스님은 “중생은 모두 부처님 마음을 지니고 있지만 그 마음을 별로 쓰고 있지 못하다. 자비심을 일으키면 그 것이 바로 발심 수행으로 바라는 마음 없는 원력으로 자비정신을 실천할길 바란다”고 대중의 활발한 활동을 당부했다.

2부 문화공연은 前환경부장관 손숙 씨의 사회로 배우 박칼린 씨와 배우 최재림 씨와의 노래, 국악고 2학년 이수현 학생의 판소리, 진도 무형문화재 5명의 민요사절가·진도북춤·지전춤, 김성녀 국립장극단 단장의 찬불가 합창이 진행됐다.

박칼린 씨는 “정우 스님과 인연으로 이 자리에 서게 됐다”며 “불자들이 불러주신다면 언제든지 달려오겠다”고 말했다.

뮤지컬 배우 최재림 씨도 “사회 소외계층을 돕는다는 취지가 너무나 좋다”며 “무대에 서게 돼 영광이다”고 말했다.

그동안 강남지역에서 각자의 포교활동에 전념했던 사람들의 연계활동에 대한 다짐도 이어졌다.

서울 불광사 주지 지홍 스님은 “그동안 강남의 중요성에도 적잖이 이 지역 사람들의 교류가 부족했다”며 “향후 연대를 강화해 불교정신을 이 지역에 활발히 퍼뜨려 주겠다”고 말했다.

주제에 맞춰 나눔 마당 곳곳에 펼쳐져 무대가 진행되는 동안 자비나눔을 주제에 맞춰 불자뿐만 아니라 일반인들까지 참여할 수 있는 나눔마당이 펼쳐졌다. 경제·문화·교육의 중심지 서울 강남

5천만원 아름다운 동행에 전달

향후 지역사회 연대활동 기대

“정법 기치 들고 전법의 길 열자”

남 한복판에서의 왁자지껄한 문화공연은 오가는 사람들의 이목을 사로잡고도 남았다. 이에 맞춰 조계종 사회복지재단과 아름다운동행은 오후 2시 행사 전부터 길거리 연꽃모금함을 시범적으로 설치하고 거리 모금을 진행했다. 연꽃모금함은 2012년 부처님 오신날을 맞아 도입될 예정인 거리모금함이다.

인근 직장에 다니는 김현철 씨(34)는 “업무 차 길을 지나가다가 어려운 이웃을 돕는 다기에 기부에 동참하게 됐다”며 수줍게 웃었다.

법회에 맞춰 특별캠페인을 진행한 아름다운가게 봉은사점은 사람들로 넘쳐났다. 협약에 따라 봉은사

점 판매수익금의 30%는 사회복지법인 봉은에 들어가 의미를 더했다. 아름다운가게에서는 법복(1000원)이 가장 인기였다.

박찬정 아름다운동행 사무국장은 “오늘 봉은사에서 불전함 등에 수급된 보시금까지 모두 아름다운동행에 기부하기로 했다”며 “단위사찰에서 이런 동참은 처음”이라고 밝혔다.

이날은 입적한 前조계종 총무원장 장관 스님의 치아사리 친견 법회도 함께 열려 평소 나눔을 강조한 스님의 뜻을 기렸다. 또 문화재 보수 등에 도움이 필요한 북한전통사찰 사진전도 열렸다.

봉은사 신도 해진 안진숙 씨(63)는 “북한에도 사찰이 많다는 것을 처음 알았다. 북한에는 불자들이 있는지, 또 그들은 어떻게 사는지 궁금하며 북한동포들에게 동참하고 싶다”고 말했다.

오후 5시, 찬불가 합송과 함께 법회는 막을 내렸다. 참석한 4000여 불자들은 각자의 집과 사찰로 자리를 옮겼다. 하지만 앞마당을 가득 채웠던 자비심은 떠날 줄을 몰랐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박칼린씨와 최재림씨가 듀엣곡을 부르고 있다.



강남지역사암연합회 회장 정우 스님은 아름다운 동행에 5천만 원을 전달했다.



아름다운가게에는 수많은 불자들로 북새통을 이뤘다.



행사에 참여한 불자들이 북한 사진전을 둘러보고 있다.

아름다운 등

찬덕불교에서는 **KS케이블**을 사용하여 가장 안전하게 **전문 기술인**에 의해 **직접 책임 시공**합니다.

전선(케이블) 연등승강장치 天上列車
※이제는 법당 연등 설치도 버튼 하나로 해결하세요.

- 어새기등
- 칼리노카시등
- 공단등
- 펜트케이블등
- 주름등
- 영가등
- 극락왕생등

연등 자동 승강장치 - 흥은사

문장대 인등

찬덕연등이 개발한 새로운 개념의 신상품 영구위패 · LED 인등 · LED 전구

용주사 LED 인등

보급형 위패

찬덕 LED 전구
1년 365일, 하루 6시간 사용 전기요금 : 98원/1kwh

찬덕불교 www.chanduk.com 경기도 광주시 실촌읍 수양2리 261-6 / 전화: 031)792-6288, 794-4055 / 팩스: 031)794-6288
취급품목: 연등 · 주름등 · 전선시공 · 영구위패 · LED인등 · LED전구

※ LED 전구 : 기존 전기요금의 10% 정도가 소요 ● 열 발산이 적어 화재의 위험성이 적음
● 빛이 사방으로 퍼져 화려한 밝기가 특징 ● 사찰에서 원하는 규격에 맞추어 제작해 드림